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거북이처럼 안으로 들어가 침묵하며 앓아서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려라. 모든 관계의 사카린인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 질문:** 신의 가문에 속하는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슈리마트는 무엇이냐?
- 대답:** 너희들은 신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앞에 직접 앓아 있으므로 많은 사랑을 갖고 그를 기억하여라. 그의 슈리마트를 따라라. 그를 더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그만큼 너희의 도취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라반인 마야는 자신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는 너희에게 싸움을 건다. 바바가 말한다: 자녀들아 나약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여기에 앓아 있다.
- 노래:** 인내해라, 오 마음이여! 너의 행복의 날들이 곧 올 것이다.

옴 산티. 누가 너희 자녀들에게 "오 자녀들아"라고 말하느냐? 마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영혼이다. 마음과 지각은 영혼 안에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이름들을 붙여주었다. 여러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신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 바바라고 불리며, 일부는 심지어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바바는 모두 것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이름이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의 자녀들인지를 기억하느냐? 너희 자녀들은 지금 여기에 앓아 있다. 너희 앞에 누가 있느냐? 너희 영혼들은 바바가 너희 앞에 앓아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한 문제이다! 너희 자녀들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너희 영혼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짚은이와 늙은이에게 "바바"라 말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영혼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바바"라 부른다. 영혼은 말한다: 오 신, 아버지. 몸의 아버지는 신,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바바 앞에 앓아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다. 쉬브 바바는 그가 누구인지 설명한다. 나는 지고의 영혼이다. 나는 너희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며, 지고의 거처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파람(지고)과 아트마(영혼)라는 두 단어를 합치면 파람아트마(신)가 된다. 그것은 참으로 쉽다! 누가 여기에 앓아 있느냐? 쉬브 바바이다. 만일 그가 여기에 없다면 브라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언제나 가슴속에서 그를 기억한다. 그도 역시 영혼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혼은 별이고 너희가 별의 비전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비전도 역시 별의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무 밝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들이 말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느낌이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해준다: 너희가 영혼이듯이,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영혼이다. 나도 역시 이 몸 안에 있는 영혼 곁에, 그의 이마 안에 앓아야 한다. 그는 여기에 앓아 너희 영혼들이 자기 안에 84생의 역할을 기록해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각자가 그 자신의 역할을 갖고 있다. 영혼들과 지고의 영혼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왔다는 말이 있다. '파람 아트마(지고의 영혼)'라는 말은 아주 명확하다. 그를 파람아트마(신)라고 부를 때, 사람들은 혼동을 한다. 그도 역시 영혼이지만, 그는 언제나 지고의 거처에 사는 지고의 영혼이다. 브라마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 모두는 살아 있는 존재들이다. 일부는 죄를 짓는 영혼들이고 일부는 자선을 행하는 영혼들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죄를 짓는 영혼이나 자선을 행하는 영혼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나는 단순히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 나도 역시 역할이 있다. 나는 불순한 세계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매 사이클마다 한 번 온다. 사람들은 기억한다: 오 정화자여, 오소서! 그러나 아무도 그 자신이 불순하다거나, 라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들은 라마의 왕국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라반을 불태우지만 그들 자신이 라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들은 틀림없이 불순하며, 그래서 그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이다. 그들은 크리슈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지고의 거처에서 왔고,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 불린다. 그를 이수와르나 바그완이라고 부를 때 혼동이 일어난다. 아버지는 이 살아 있는 존재를 통해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녀들이여, 몸 없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여기에 보냈을 때,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었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몸을 취했고,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84생의 사이클을 마쳤다. 지금 이때에는 모두가 라반의 자녀들이다. 너희를 불순하게 만든 것은 라반이었다. 너희들은 이제 신의 자녀들이 되었다. 바바가 이제 왔다. 그가 말한다: 나의 역할은 사악한 공동체를 신성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이다. 드라마에 따라서 나도 역시 내 자신의 때인 사이클의 합류시대에 온다. 철시대는 불순하고, 낡고, 타모프라단한 세계인데, 그럴 때에 내가 태양 왕조와 달 왕조의 왕국을 세우러 온다. 오직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라야 내가 그것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태양 왕조와 달 왕조가 존재할 때는 상인 왕조와 슈드라 왕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신인들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신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버지와 요가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 너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다. 너희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부유하게 되기 위해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려야 한다. 너희들은 바바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바를 기억하는지 차트를 기록하여라. 더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초감각적인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초감각적인 기쁨에 관해 알고 싶으면 고피 발라브에게 속하는 고피들에게 물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발라브라 불린다. 아버지의 형태는 그의 자녀들의 형태와 같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들의 아버지도 또한 영혼이다. 그러나 그는 지고의 거처에 사는 분이다. 만일 씨앗이 사이클 안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나무가 저 위로 올라갈텐데, 그것은 마치 나무의 씨앗이 저 밑에 있고 나무가 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선 나무이다. 그것의 씨앗인 지고의 영혼은 지고의 거처에 산다. 영혼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저 위에서 내려온다. 가지들은 계속 나온다. 아버지가 말한다: 라반이 너희를 추하게 만들었다. 이제 너희들은 아름다워져야 한다. 그들은 크리슈나와 나라얀을 둘 다 추하게 묘사했다. 왜 그들이 락수미는 아름답게 묘사하는가? 둘은 정육의 불길 위에 앉았음이 틀림없다. 크리슈나에 대해 그들은 그가 뱀에 물렸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라얀은 누가 물었느냐? 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라반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 냈다. 이제 바바가 와서 너희를 라반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슈리마트를 주고 있다. 나는 모두에게 구원의 공여자이다. '슈리 슈리 108 자가드구루'의 칭호도 또한 그의 칭호이며, 따라서 그는 세계에 구원을 준다. 그란트에는 그의 찬양이 많이 쓰여 있다. 사트구루, 참된 황제는 진리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다. 바바는 모든 것을 외웠었지만,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을 매우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는 라반의 가문에 속했었다. 너희들은 이제 신의 가문에 속하고, 따라서 너희는 아주 많은 사랑을 갖고 그를 기억해야 한다. 바바, 당신은 참으로 다정해요! 당신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하늘에 계신 신, 아버지를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도취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누구 앞에 앉아 있느냐? 아버지가 말한다: 오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지고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의 슈리마트를 따르지 않고 있느냐? 정육의 악령이 너희를 쓰러트린다. 아버지가 말한다: 왜 너희들은 나약해지느냐? 너희들은 슈리마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사악한 지시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은 싸워야 한다. 마야는 그녀의 손님들을 뺏기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싸움을 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있다. 그는 너희에게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한 모든 베다와 경전들의 요지를 설명한다. 그가 서틀 리전에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브라마가 비슈누의 배꼽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틀 리전에 어떻게 배꼽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이 써놓은 것들을 좀 보아라.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지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에서 끝난다. 나중에 쓰여지는 모든 경전들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지식은 여기에서 사라진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 나의 지시를 따라라! 영혼의식을 가져라! 경주를 해서 내 목 둘레의 화환이 되어라! 이것은 지각의 경주이다. 산야시들은, "몸 없이 되어라! 끊임없이 나 혼자만을 기억하여라."라고 말할 수 없다. 신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모두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그의 말을 직접 듣지만, 온 세계가 듣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쉬브 라트리(쉬바의 밤)를 축하한다. 그들은 또한 쉬바의 사원을 갖고 있다. 그는 틀림없이 왔지만 쉬바의 형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는 별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면, 그들은 너희에게 사원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잘못되었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한다: 자녀들아, 나도 역시 영혼이다. 그저 너희들은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에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지 않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줄 수 있다. 나는 정화자이고, 따라서 나는 반드시 불순한 세계 속에 들어와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를 정화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며, 완전한 소멸이 일어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화자라고 불리고, 이것은 이 세계가 영원함을 증명한다. 세계는 완전한 소멸을 거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불순해지고, 나는 그것을 순수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평범한 사람에서 나라얀으로 만들기 위해, 이 황소 또는 행운의 수레 안에 들어온다. 모두가 태양 왕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또한 그가 락수미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를 물었던 신봉자의 이야기도 있다. 나라드는 신봉자였다. 그는 이런 말을 들었다: 제일 먼저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제일 먼저, 원숭이에서 사원에 들어가 있을 가치가 있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당신은 락수미와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원 안에 있을 만큼 가치 있게 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때에 해당된다. 누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느냐? 쉬브 바바가 브라마 다다의 이마 가운데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사람(브라마 바바)의 영혼이 이마 가운데에 앉아 있으므로, 그분(쉬브 바바)은 틀림없이 곁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식으로 가득 찬 아버지가 너희에게 세계의 시작, 중간, 끝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갖고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것은 쉽다.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림으로써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별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심지어 승리의 염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자유로울 때 거북이처럼 침묵 속에 앉아서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려라.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마지막 생에 순수하게 지내라. 이것은 불순해지게 만드는 세속 사회의 행동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불린다. 다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으면 세계도 너희에게는 죽은 것이다. 무체가 되어서 나에게 속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고, 따라서 누가 누구를 위해 울어주겠느냐? 히로시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울음의 나라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더러운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신체기관에 병균이 가득 차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겠느냐? 황금시대에 너희들은 그런 몸을

갖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신체기관이 향기가 날 것이다. 바바는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꽃들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낡고 긴 구두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는 집에서 살아도 좋다, 그러나 슈리마트를 따라라. 악덕에 빠지지 말아라. 쉬브 바바가 너희 앞에 앉아 있으니 그를 잊지 말아라. 앗차.

노래 : 하늘이 땅에 소리쳐 부르고 있네....

하늘에 거하는 아버지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야 한다. 그러므로 애착의 정복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무한한 행복을 줄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종류의 행복의 사카린이다. 외삼촌, 친삼촌 등은 모두 너희에게 슬픔을 준다. 너희들의 버림은 지옥의 사악한 세계 전부를 버리는 것이다. 산야시들은 단순히 그들의 가정만을 버린다. 너희들은 지옥의 이 더러운 세계를 잊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약간의 부가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천국에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부자일지 모르나 만일 파산 당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든 사람이 끝난다. 그러면 그들은 울고 통곡하기 시작한다. 거기에서는 사고의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는다. 바바가 말한다: 좋다, 만일 너희가 천국에 있다면 행복을 유지하여라! 나는 지옥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여기에 왔다. 기부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다. 부자들이 부자에게 기부를 하느냐? 나는 모두 이들 중에서 가장 부자이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한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와 유행에 도취되어 있다. 앗차.

바바는 이것이 인드라프라스트(인드라의 궁정)라는 것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백조들이 진주를 줍는다. 그러나 황새인 자들은 돌을 줍는다. 그래서 바바가 말한다: 황새들(남들의 결함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백조들(미덕을 줍는 이들)만이 여기에 와야 한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잊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아버지의 슈리마트를 따르며, 영혼의식이 되어 아버지 목에 걸린 화환이 되어라.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머물고 초감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여라.
2.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가 되어라. 어느 누구의 것이든 더러운 육신을 기억하지 말아라.

축복:

너희들의 신성한 산스크어를 써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듦으로써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신성한 산스크어를 사용하는 자녀들은 낭비적인 생각을 자동적으로 끌낸다. 뭔가를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축해서 그것을 늘린다는 뜻이다. 너희가 낡은 산스크어를 계속해서 쓰고 신성한 산스크어를 지각이라는 개인사물함에 보관만 해두지는 마라. 일부 어떤 이들은 좋은 소유물이나 돈을 은행이나 찬장 선반 위에 간직해두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오래된 물건들을 무척 좋아해서 계속 그것들을 쓴다. 여기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너희는 생각, 말, 강력한 태도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너희는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슬로건:

“아버지와 나”라는 가림막이 너희들 위에 쳐져 있을 때는 어떤 장애도 너희 곁에 머물 수 없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